

이철우지사, “이제 우리가 이뤄야 할 광복은 ‘지방화’”

제78주년 광복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가족분들께 깊은 경의 기후변화, 미래 50년 후를 보고, 재난·재해관리 전면 재검토 선진국 지위에 맞게 분열 멈추고 국민통합 시대 열어야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로 발전... 지방시대 완성이 초일류국가 만들 것 이철우지사, “어떤 도전도 실패로만 끝나는 법은 없다. 이미 도전 자체가 성공이다.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경북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동라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존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겨레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경축식은 광복의 기쁨을 아리랑으로 표현한 가무극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보존사업 영상 상영 ▲개식 및 국민연례 ▲이병철 광복회 도지부의 기념사 대독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표창 ▲이철우 도지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배한철 도의회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11명, 한국전쟁의 유족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해 애국심을 기렸으며,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로 선정된 도민과 공무원 10명에게도 표

창을 수여했다.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만세삼창을 외칠 때는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태극기와 독도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과 함성을 터뜨리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또 행사장 로비에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 직후까지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으로 구성된 ‘학교로 보는 한국근대 현대사’ 전시(천안 독립기념관 대여품 전시)가 열려 방문객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축사에서 “더없이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했다”며, “지난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강조한 “지구 온난화 해결은 기술혁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며, “재난·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 50년 후를 보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인류의 살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5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고, 새마을운동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까지 경북의 눈부신 성취를 세계와 나누고 있다”고도 말하면서 “건국에서부터 산업화,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걸보기에는 순조롭게 달려왔지만, 좌우 이념은 물론 각자의 틀에 갇혀 서로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 분열했다”며, “이제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분열을 멈추고 협력해 국민통합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1945년이 ‘1차 광복’이었다면 ‘2차 광복’은 산업화, ‘3차 광복’은 민주화였다. 이제 우리가 이뤄야 할 광복은 바로 ‘지방화’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이견희 회장의 명언을 거울삼아 “민선 8기 1년간 ‘경북’이름만 빼고 싸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도전했고, 지금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안착을 위한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고, 3개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 이차전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대구경북통합 신공항특별법 하위법령 마무리, U-City 지정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철우 지사는 “과거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지만,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면서 경북뿐만 아니라 지방 대부분이 ‘쇠퇴와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또 해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면서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히면서, “어떤 도전도 실패로만 끝나는 법은 없다. 이미 그 도전 자체가 성공이다. 경북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소금박람회서 ‘케이-솔트’ 우수성 세계에 알린다

전남도, 16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전남 천일염 전시·판매

전라남도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2023년 소금박람회’를 열어 ‘케이-솔트(K-SALT)’ 세계화에 나선다.

박람회는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 주최한다. 뛰어난 맛과 품질의 천일염을 ‘케이-솔트’로 명명하고 그 가치와 위상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위해 국내 외국인 어학 교육기관, 문화교류센터, 주한 외국공관 등 220여 외국인 관련기관에 포스터 발송 등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펼쳤다.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누리소통망(SNS) 응원단(서포터즈)을 구성해 ‘케이-솔트’ 제품과 소금박람회 현장을 전 세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소금박람회 전시·홍보관은 6개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주 전시관인 케이-솔트관은 전통 기와 형태의 부스와 영상·조형물로 표현해 천일염의 역사, 생태, 세계의 소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행(TRAVEL)관에서는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소금 등 여러 캠핑제품, 신안과 영광의 천일염 산지를 여행할 수 있는 연계 관광정보를 구성했다.

건강(HEALTHY)관에서는 소금힐링동굴, 호흡기케어제품 등 바르고(미용), 머금고(구강), 느끼는(치유) 다양한 천일염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생활(LIFE)관에서는 생활 속 유용한 천일염 활용 방법과 함께 최근 유행하는 여러 소금 제품을 소개한다.

소비자(CONSUMER)관에서는 소비자가 국산 천일염을 신뢰하도록 천일염 이력제, 우수천일염 인증제 등 관련 정책·제도를 홍보한다.

특히 브랜드(BRAND)관에서는 천일염 제품 판매와 함께 전남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한다. 다양한 수산물공식품과



전복 등을 무료로 시식하고 이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박람회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개막일인 16일 (사)대한민국김치협회를 비롯한 식품·외식업체 관계자와 전남 천일염 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대한민국 우수소금! 갯벌 천일염!’ 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천일염 산업의 정책과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한 전남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며 “‘케이-솔트’가 글로벌 명품소금으로 도약하도록 힘차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소금박람회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58만여 관람객이 다녀간 대규모 행사로 올해로 15회째다.

박종배/기자

서울시, 16년간 3만3천가구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 살이’ 들려주세요!

서울시, 8월 10일~9월 15일 수기 공모... 대상 100만원 등 상금 총 490만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장기전세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솔한 수기를 공모한다.

서울시는 8월 10일~9월 15일 ‘장기전세주택으로 바뀐 나의 일상, 가족의 풍경’ 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대상 100만원을 포함해 수상자 16명에게 시상금 총 490만 원이 수여된다.

대상 등 16명 외에도 참가상을 수상한 50명에게는 상품권 1만 원권이 지급된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

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3,973호가 공급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왔으며 현재 전국 공급량(38,265호)의 89%가 서울 시내에 공급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30,175호, 매입형 3,798호(재건축·재개발 등)가 공급되어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상생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기존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공공주택 공급대상을 무주택 중산층으로 확대했으며,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 목적에 따라 주거면적을 늘리고(59~84㎡ 타입, 89.6%)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거주가

구가 자녀를 동반해 살고 있는 비율이 높고(70.6%) 평균 가구원 수 3.56명으로 전체 임대주택 대비 1.24명 많은 것으로 보아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자가를 마련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에도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실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솔직한 경험담과 높은 주거 만족도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10월 시상식과 함께 수상자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장기전세주택 살고 있거나

살았던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기전세주택 거주를 통한 자산 형성 또는 주거생활의 변화 경험 등이 담기면 된다.

시는 이번 수기 공모 및 거주경험자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장기전세주택 제도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6년 동안 시민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온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차츰 확인되고 있다”며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해 앞으로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서울시민의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허훈서울시의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일명 셔츠를 등 닦겨온 신종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을 광고하는 전단의 무차별적인 살포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4일,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전단 근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셔츠를'이라고 적힌 신종 유흥업소 또는 불법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단들이 무작위로 살포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허 의원은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불법

전단 관련 민원·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3년 1~3월 3개월간 접수된 민원이 많게는 5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구의 경우 2021년 접수된 불법 전단 관련 접수된 민원·신고는 14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3월 3개월간 접수된 건은 718건으로 51배 증가했다. 관악구는 153건에서 469건으로 3배, 마포구와 광진구는 각각 2.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사무는 자치구 소관으로 정기 단속,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수시 단속을 통해 계도·과태료 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현장 적발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단속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자치구별 불법 전단 현황을 파악하고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자치구가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유해 불법 전단의 무작위 살포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법 전단이 기승을 부리는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주축이 된 불법 전단 공동정비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위해 관련 법령 분석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3차 회의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은 9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3차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김미화 의원, 충남도교육청 담당자와 과밀학교 학부모, 연구용역을 맡은 호서대학교 이노신 교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차 회의 요청자료에 대한 논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유됐다. 회원들은 특히 교육청(교육감)의 의무 협의 대상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관련 법령 개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분석하는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회원들은 또한 연구과제의 보완과 신뢰성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구형서 의원은 "도의회 회기마다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안건 중 하나가 과밀학교에 대한 문제로,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연구모임은 하루빨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출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충남의 과밀학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남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으며, 연구모임 대표인 구형서 의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꾸려졌다.

최정근/기자



대구 북구의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 가져"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지난 11일(금),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과 구민에게 알맞은 조례 제·개정을 위한 '북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2022년 1월,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북구의 현행 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조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법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회는 현 대구 북구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근거 법령 부족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봉 의원은 "더욱 확대된 지방자치 시대에 조례는 지역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므로 그 중요성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하위법령이 아닌 그 지역의 삶을 담고 있는 좀 더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이상봉 의원(대표), 김상선 의원, 김상혁 의원, 김현주 의원, 임수환 의원, 장영철 의원,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 총 9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 지역 현장 벤치마킹 실시 등 10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협회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에서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이 큰 인물, 기업, 단체를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계태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 경산 수정라이온스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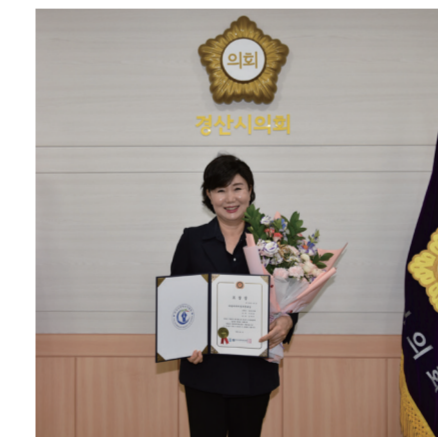
▲민주평화통일 경산시협의회 부회장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경산시지회장 등 30여년간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왔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경산시가 가진 비교우위의 여건에 기반한 관광정책 정립과 체류형 관광코스 조성을 촉구하는 등 침체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제언을 하며,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계태 의원은 "지방자치 의정발전을 위해 더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이상을 주신 것 같아 책임감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동현/기자



화성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참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금일 12일, 화성시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태남 교육복지위원장, 정홍범 도시건설위원장, 송선영 '이계철' 이용은 '위안부' 장철규의원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추념사에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치유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역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음속 용어를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생존해 계신 아홉 분의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

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1991년 8월 14일을 기리고자 2017년 법률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한편, 본 행사의 주관사를 맡은 화성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서효숙)는 2014년 8월 동탄센트럴파크를 시작으로, 2015년 캐나다 토론토, 2016년 중국상하이, 2019년 호주 멜버른, 2022년 매항리 평화생태공원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이어오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 수립 지원 근거 마련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운영방식 등 변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8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8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한,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태풍 '카눈' 대응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힘, 성남7)과 김시용 의원(국힘, 김포3)이 10일(목)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 발생에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수준인 3단계로 높여 태풍 대비에 나섰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고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하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풍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니 피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다. 힘들겠지만 이후 피해 복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방문에 앞서 350여명의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소방학교를 방문해 체험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김범상/기자



김성수 의원,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봉로 과장과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장 설광수, 덕동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이은경, 한솔3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권대경이 참석하여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가칭 신덕풍역 설치에 대한 설명 및 상호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광수 위원장은 "교산 신덕풍역 설치에 덕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 가칭 신덕풍역이 코카콜라(주) 하남물류센터(하남시 천현동 246-1) 위치에 반드시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덕풍역이 최초에는 코카콜라(주) 하남물류센터(하남시 천현동 246-1) 위치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장소 남쪽으로 이전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분노하여 2019년에 이어 올해에 2차로 덕동 주민들이 신덕풍역을 코카

콜라 물류센터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각 기관에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봉로 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는 동 사업을 잘 조율해 주는 입장이니 철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봉로 과장"에게 "우리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요청"하였고, "신덕풍역이 당초 장소가 아닌 제2의 장소로 설치된다면 덕동1동의 낙후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덕동 주민들의 교산 신도시 내 신덕풍역 설치 요구는 지역주민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도 아니며 "신도시와 원도심 주민이 공동으로 지하철역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덕풍역 장소 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이자형 의원, 신현1중학교 신설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정담회를 갖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가칭)신현1중학교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가칭)신현1중학교는 광주시 신현동 일원에 4천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학생 유입

및 인근 신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설립 절차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미 통과하였고, 이달 중 경기도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금도 포화상태에 이른 광주의 중학교

수용여건을 고려할 때 (가칭)신현1중의 신설 일정에 조금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임태희 교육감께서도 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가칭)신현1중의 개교 전까지 과밀과대학교가 될 우려가 큰 신현중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를 해소할 도교육청의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당장 내년에 신현중학교로 취학해야 하는 학생들은 100여 명 이상 증가하지만 학교는 이미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여건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도교육청의 주장처럼 만일 학교가 당장 내년에 특별실인 기술·가정실과 학생회실 등의 공간을 줄여 역지로 4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한다면 이로 인해 악화된 교육환경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만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군 경계와 민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과대과밀학교로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가칭)신현1중이 반드시 적기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내년에는 신현중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배치를 위해선 성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공동학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학생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하남·성남교육지원청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재영 의원,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 내

부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8일 오후 2시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 북서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을 비롯해 ▲부천상동시장상인회, ▲중동사랑시장상인회, ▲신중동문화거리상인회, ▲반달종합상가상인회, ▲로데오거리총상가상인회, ▲상상거리상인회, ▲송내영화거리상인회 상인회장 등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상임이사과 북서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해 시장상권 관계자와 경기도와 정부 정책 및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올해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공동체 지원사업, ▲매니저 육성사업,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 등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부천시 시장상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한 관계자는 시장·상권을 위해 만들어진 특정 시설들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종일 주차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 주말 간 '알박기'를 시전하는 차들이 있어, 실제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예산집행 시기 조정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예산이 너무 늦게 떨어져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 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 《2023 아트경기×제로베이스》 개최

경기문화재단과 서울옥션이 협업, 2023 아트경기 작가 9인의 작품 85점을 온라인 경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지역 시각예술작가 발굴과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서울옥션과의 제휴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2023 아트경기×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

서울옥션이 2019년 런칭한 '제로베이스'는 신진작가의 미술품 경매 시장 진출을 위해 기획된 온라인 경매 사업이다. 이리에서 알 수 있듯이 0원부터 응찰을 시작하는 게 특징으로, 시작가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작가와 컬렉터의 개성이 존중받고 오로지 작품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제로베이스 경매에는 2023 아트경기 작가로 선정된 9인(고은주, 구서이, 김희연, 김희진, 나광호, 범진용, 양승원, 임철민, 전은진)이 참여하며, 구작부터 신작까지 총 85점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다. 또한 이종기, 최혜지 작가가 초대작가로 별도 참여한다.

경매는 서울옥션 홈페이지 내 '제로베이스 경매' 세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로그인 후 무료로 응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리는 프리뷰 전시를 통해 이번 경매에 출품된 작품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경매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옥션 홈페이지 및 아트경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ZEROBASE X 아트경기

Na Kwangho, Koo SeoYi, Jeon EunJin, Beom JinYong, Yang SeungWoon, Im CheolMin, Kim HeeJin, Kim HeeYon, Go EunJoo

ONLINE AUCTION 8. 17THU 2pm
www.seouluction.com

PREVIEW 8. 12 SAT - 8. 16 WED
서울옥션 강남센터 B4

주최 ZZZ
주관 Seoul Auction

오세풍의원,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도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일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 김민정 회장과 임원진 대상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개선(요구)사항으로 스마트도서관 설치 요청을 하였으며 천정 벽면 누수나 학교 앞 불법 주차 단속, 학교 안내표지판 설치 등등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교육환경개선과 교통 안전 관리 방안, 다문화 학생 특별교육 대상자 교육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회는 교육환경개선으로 △과밀학급 해소 △교통환경개선 △학부모 인성 교육 개성 개발 및 의무교육 강화 △깨끗한 급식음식물 쓰레기처리, 교통안전 관리방안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부 승·하차구역 확대 설치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학교 도우미 배치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풍의원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고려하고, 도의회나 시의회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풍/기자



용인특례시, 휴일에도 잔류대원 지원활동 통해 맡은 책임 이상의 책임감 보여줘

5개국 대원 50명에게 숙식·차량편의 제공

용인특례시가 지난 8일부터 잼버리대회가 공식 종료한 12일까지 용인에 체류한 35개국 대원 50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마친데 이어 잔류인원 50명이 13일 오전 오후, 14일 새벽 출국할 때까지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맡은 책임 이상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삼성생명 휴먼센터에 하루 더 숙박한 산마리노, 부탄, 벨라루스 등 3개국 대원 34명은 13일 오전에 출국했다.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 기숙사에 머물던 감비아, 보츠와나 등 2개국 16명은 14일 새벽 출국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특별지시로 이들 대원이 아무런 불편없이 용인에 머물면서 출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까지 차량편의를 제공하고 안내도 했다. 14일 새벽에 출국하는 감비아·보츠와나 대원들에게도 13일 밤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잼버리대회가 12일 오전 종료된 뒤 용인에 체류하던 5000여명의 대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귀국길에 올랐지만 비행 일정 때문에 12일 출국이 어려운 5개국

50명의 대원들에 대해 용인특례시는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12일 오전에 잼버리 공식활동이 끝나는 만큼 대원들을 받아들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활동도 12일에 모두 종료하라는 뜻을 10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10일 저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항공편 시간 때문에 12일에 출국하지 못하는 대원들이 꽤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활동을 12일에 종료하면, 그날 출국할 수 없는 대원들은 하루 이를 더 머물 숙소를 갑자기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숙소 지원을 했던 것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숙소 제공을 하고 공항까지 차량 지원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대한민국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다음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더 체류하는 잔류 대원들도 잘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대학과 협력해 잔류 대원들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는 이날 삼성생명휴먼센터와 명지대와 협의해 각각 3개국 34명, 2개국 16명에게 추가로 숙식을 제공하고 차량 지원도 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대원들을 지원할 직원을 배정하고 출국 차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안내하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35개국 대원 5000여명이 용인에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 대원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그간 대원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시의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 대학·기업원 수원·교회 등 15개 숙소 제공 기관 관계자들, 시민 자원봉사단들, 음주소·간식 지원을 해주신 각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잼버리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잠시 더 머물게 된 대원 50명이 모두 출국할 때까지 시가 책임지고 지원을 하겠다"면서 "이들에게 숙소와 편의를 추가로 제공해준 삼성생명휴먼센터와 명지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의(謝意)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잼버리대원들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어떤 차질이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지원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대원들을 받아들이는 용인특례시의 역할과 저력을 이번엔 충분히 발휘하고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오는 25일까지 신청

최대호 시장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안양시는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및 선정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기업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 내규에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청(여성가족과) 또는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의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에 가점(2024년부터 적용, 가점 지원사업 별도 안내)이 부여된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안양여성친화지도,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신우용/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잼버리 대원들과 하나된 소중한 시간



정명근 화성시장이 12일 공식일정을 마친 잼버리 대원들을 수원대학교에서 환송했다.

6호 태풍 카눈의 복상으로 화성시로 오게 된 3개국 1,000여명의 대원들은 8일 저녁부터 12일까지 체류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화성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9일 대원들은 용건원에서 정조의 효 사상이 담겨있는 조선의 왕릉을 체험하고 제부도와 전곡항을 잇는 서해랑 케이블카에 탑승한 후 천혜의 관광지 제부도를 투어했다.

10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본사인 용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신텍스에서 한 여름 밤의 꿈 음악회 공연을 즐겼다.

이외에도 수원대 농구부와 함께한 체육활동 및 K팝 댄스배우기 등 시에서 준비한 체험활동은 대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잼버리 대원 지원활동을 통해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급하게 숙소를 준비한 관내 대학교, 연수원과 체험을 준비한 종교인, 학생,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자사가 있었기에 대원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잼버리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귀국해 세계 속의 화성시와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소중한 인연이 어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안산에서 하나 된 각국 잼버리 대원들 "음악회부터 K-POP 체험까지 안산시 잊지 않을게요"

전담팀(TF) 단장 행정안전국장장으로 격상... 문화 예술의 도시 매력 알려



태풍으로 인해 잼버리 대원들이 지난 8일 새만금에서 조기 퇴영하면서 아쉬움을 안고 안산을 찾았지만, 어느새 이들의 얼굴은 금세 웃음기로 가득해졌다.

"안산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타 국적의 대원들과 한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서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안산을 찾은 파나마 국적의 한 스카우트 대원이 지난 10일 오후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진행된 '몸으로 말해요, 언어는 달라도 눈빛으로 소통해요'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안산시는 6개국 215명의 대원들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장인 새만금을 떠나 안산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내 4개 숙소에 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 마련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민근 시장은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국장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릴 것을 지시한 뒤 상호문화도시인 안산의 매력과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추억을 선사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잼버리 대회가 세계 청소년 문화 올림픽이자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문화 예술의 도시인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 대학과 공공기관 협조 통해 숙소 지원,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

시는 관내 대학 기숙사와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참가자들의 숙소로 활용했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들이 남은 일정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으며, 폭염과 코로나 재 유행 가운데, 대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보건소와 연계해 의료진 및 의료품을 빠르게 지원했다.

아울러, 새만금에서 철수한 잼버리 참가자들이 남은 기간 중 한국과 각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마련해 진행했다.

특히 기존에 진행 중인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과 전시, 음악회 등 안산의 특색이 담긴 공연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면서 대원들이 크게 만족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대부도 생존 수영 체험활동, 유리섬박물관 견학, 압력등반 체험, K-POP 댄스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대원들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 민간에서도 함심... 잼버리 참가자들의 얼굴은 금세 웃음기로 가득해졌다.

태풍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안산을 찾은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민간에서도 식료품 등 물품 기탁이 이어져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안산시는 지난 9일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한국노총 안산시지회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NH농협안산시지부 ▲지역농협조합군자농협 ▲반월농협 ▲안산농협 ▲광덕회로부터 시에 체류 중인 잼버리 대원을 위한 치킨, 빵, 과일 등 물품을 기탁받았다. 아울러, 태풍을 대비해 관내 꿈의교회에서 우산을 기부했다.

한국 음식문화의 관심이 많았던 대원들에게 치킨이 배달되자 숙소에는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물타 국적의 한 잼버리 대원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먹는 방송(먹방)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그중 치킨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라며 "예상치 못한 맛있는 음식을 선물 받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 잼버리 방문단 환영 음악회 성료, 언어 달라도 눈빛으로 '소통'

지난 10일 6개국 215명의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국적과 성별을 떠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산시는 이른바 특별기획 행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 프로그램을 빠르게 기획해 내실 있게 추진했다.

이민근 시장은 "청소년들의 문화 올림픽인 잼버리 대회가 조기 퇴영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잼버리 대원과 함께 안산의 추억을 만드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퇴소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류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을 방문한 6개국 총 215명의 잼버리 대원들은 12일 안산에서의 추억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안전하게 귀국 길에 올랐다.

최정부/기자

고양특례시-요넥스코리아,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성공적 개최 위해 협력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023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고양체육관에서 열린다

고양특례시가 8월 11일 고양시청에서 요넥스코리아와 '2023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고양체육관 등지에서 열린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시 관계자, 요넥스코리아 김철웅 대표이사사와 요넥스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를 비롯해 고양시배드민턴협회 신광배 회장, 이성식 고문 등이 참석했다.

고양특례시는 전국 최대 배드민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세계 10개국이 참여하는 배드민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는 풍부한 배드민턴 대회 운영 경험을 갖춘 요넥스코리아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배드민턴 대회의 든든한 후원자인 요넥스코리아와 협력 관계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양특례시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를 시작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고양시가 배드민턴 대표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요넥스코리아 김철웅 대표이사사는 "좋은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고양특례시에서 열리는 대회를 후원하게 되어 기쁘다. 고양시 위상을 강화하고 고양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4천여 명과 한 여름밤 무더위 '2023피크닉콘서트'로 짝 날려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7시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2023 피크닉콘서트'에 참가해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시민 4천여 명과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혔다.

피크닉콘서트는 수정구·중원구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가족들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돼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성남시를 대표하는 한 여름밤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연은 신 시장과 함께하는 밸런스게임 이벤트를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 폴킴과 멜로망스가 함께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했다.

'2023피크닉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023피크닉콘서트'가 개최된다.

파크콘서트는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야생센터 고객센터 및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가족돌봄 대상자 어려움 발굴 위한 거리 설문조사

청년(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등 설문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이 12일 인계동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인근 거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대상자의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해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굴한 개선안을 공공정책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정책디자인'은 국민, 공직자, '서비스디자인'이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참여제도다.

설문조사는 패블에 청년(가족돌봄청년)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가장 힘을 주는 사람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은? 등이었다.

돌봄을 받았거나 가족을 돌볼 경험에 있는 청년에게는 ▲연제, 누구를? ▲가정 안에서 역할 ▲돌봄을 받거나 가족을 돌볼 때 감정 ▲가족의 의미 등을 추가로 질문했다.

이날 거리 설문에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들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전개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올해 12월까지 수원시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가족돌봄청년 공동주택 운영방안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또 정책 수요자에 맞춘 지원체계와 주거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인천시,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 크기 물고기 아파트 설치

대청·소청, 덕적, 자월 연안해역 52ha에 인공어초 648개 설치

안양시는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및 선정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 내규에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청(여성가족과) 또는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의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에 가정(2024년부터 적용, 가정지원사업 별도 안내)이 부여된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안양여성친화지도,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김종남/기자



하남시,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선정으로 도비 40억 확보

영어·체험 특성화 도서관으로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 예정



하남시가 추진 중인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이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40억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은 영어·체험 특성화 도서관으로 하남시 망월동 1072번지 일원에 지하1층 ~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71억 원(도비 40억 원, 시비 131억 원)을 들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화 자료실, 강의실, 체험공간 등을 갖추며, 개관 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영어특화 서비스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그간 설명회를 통해 수립된 주민 의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로 전문 컨설팅단 자문내용을 종합 반영하여 도서관 건립 실시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비지원금은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향후 경기도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 교부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안산시, 2023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국가 위기 관리연습

오는 8월 16일 위기 대응 연습, 21일부터 24일까지 전시 대비 연습 진행

안산시는 지난 11일 '2023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및 사전교육'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위기 대응연습과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있을 전시 대비 연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이민근 시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김대순 부시장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3명이 전원 참석해 올해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올해 55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관리연습과 전시 전환 및 국가 총력전 대응 등으로 지역방위 태세를 보다 꼼꼼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습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안산시 외 20개 기관의 민·관·군·경·

소방 관계자 약 480여 명이 참여해 복합해 전 세계 안보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훈련이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카눈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시, 공습 상황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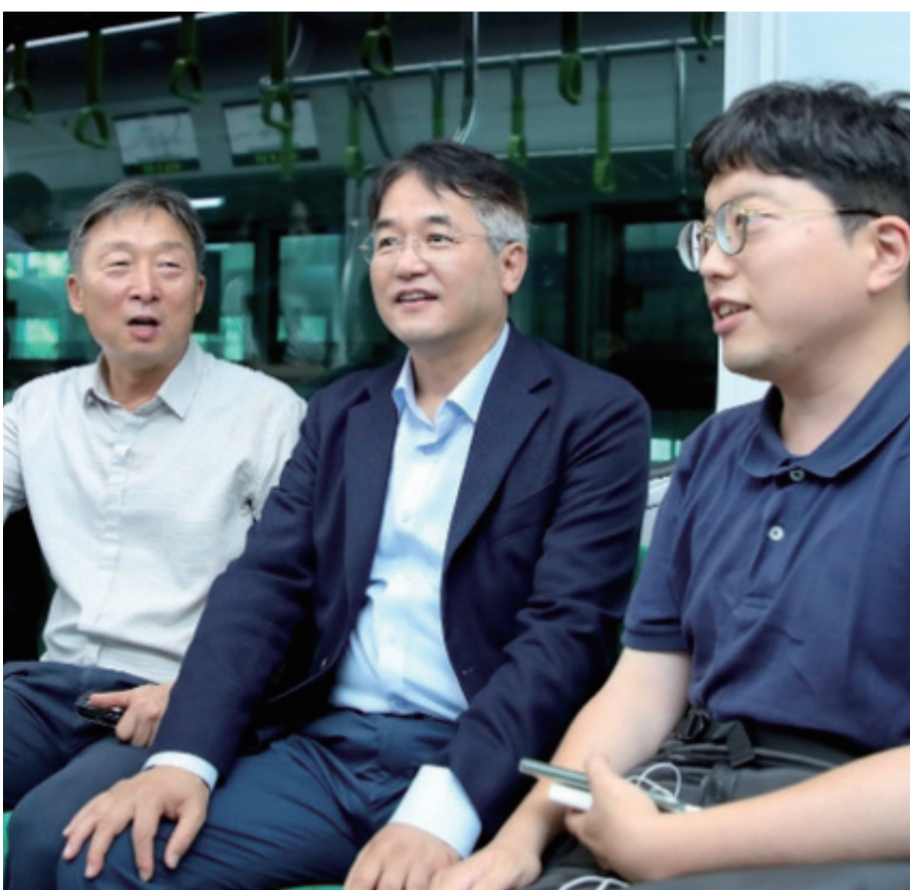
최정부/기자



한영기/기자

서해선 일산역 개통 눈앞...고양시 전역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로

이동환 고양시장 "수도권 서부 하나로 잇는 교통망 만들겠다"



오는 8월 26일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해 고양시 전역에서 경기 서남부로 이동하는 교통여건이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고양시에서 김포,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서부 전역과 서울 도심까지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곡역에 이어 일산역 구간까지 서해선이 연장 개통되어 그간 환승하거나 돌아가야 했던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편리하고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로 선정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노선도 김포, 인천과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서부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월말 서해선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 막바지 준비 한창

지난달 대곡~소사 구간을 개통한 서해선이 8월 말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대곡~곡산~백마~풍산~일산역까지 6.8km로 연장이 완료되면 일산지역 시민들도 환승 없이 경기 서남부 및 수도권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선은 대곡역에서 김포공항, 부천소사, 안산 원시까지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다. 2018년 소사~원시 노선이 개통한데 이어 2016년 착공한 대곡~소사 구간이 지난달 1일 7년 만에 개통했다. 대곡~소사 구간 개통으로 대곡~김포공항 이동시간은 기존 40분에서 9분으로, 대곡~소사 이동시간은 기존 67분에서 21분으로 시민들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대곡역~일산역 구간은 경의중앙선을 공용으로 이용한다. 시는 연장 운영을 위해 총 109억 원을 투입해 △경의중앙선 구간 신호기 설치 △반복선 운영을 위한 신호 개량 △일산역 시종점 승무원 숙소 등 운영설비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서해선 운행차량 7대 개조 작업도 완료되면서 현재 26일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가 진행 중이다.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연장되면 일산역~김포공항은 기존 50분에서 19분으로, 일산역~소사역은 기존 77분에서 29분으로 일산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하면 마곡, 여의도, 강남 등 수도권 중심까지 이동시간이 20~30분 단축된다. 부천종합운동장과 소사역에서도 각각 7호선과 1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가산 디지털단지, 부천, 인천 등으로 접근이 편리해진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대상 선정...탄현-중산지구까지 연결

지난 7월 20일에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2호선 동정역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 탄현-중산지구까지 19.6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12개의 정거장과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게 된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고양시는 인천, 김포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B/C값은 1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지난 7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은 2035년 개통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내년 하반기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영덕 CCTV 통합관제센터', 매의 눈으로 24시간 군민 안전 지킨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적극적, 선제적 조치를 취해 준 관제요원·통합관제센터 담당 공무원 격려하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해

영덕군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관제로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13일 자정 무렵 영덕읍 남석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CCTV를 통하여 포착하고 관제요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실시간으로 동선을 추적하여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검거한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같이 통합관제센터는 음주운전, 물피도주, 절도, 폭행 사건 등 관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해결 및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실종 치매 노인 최초 발견 및 안전 귀가를 도운 것은 물론,

얼마 전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시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상 지역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 지역 집중 감시와 동시에 태풍으로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 신속한 대처로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았다.

특히 영해면 대리 경사지 토사 유출 및 강구면 동광어시장 인근 폴(pole) 및 입간판 파손 등 자칫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군청 관련 부서 및 해당 면사무소에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가 피해 없는 신속한 대응에 일조하였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준 관제요원들과 통합관제센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장문화/기자



울진군,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공모 선정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가족돌봄 청년 대상 8월~9월 중 실시 예정, 소득제한 없이 서비스 신청 가능

손병복 울진군수,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에 선도적으로 참여,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

울진군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3년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위한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만40세~64세)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13세~34세)이 대상이다.

울진군의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사업인 재가 돌봄서비스(월12~72시간)와 특화사업인 식사지원, 병원동행, 심리지원서비스로 운영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제한 없이, 차등화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본인 필요도에 따라 재

가 돌봄서비스 외에 특화사업 최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울진군은 오는 하반기(8~9월) 제공기관 모집공고 통해 기관을 모집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서비스 개시 후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경북안전기동대, 군위군 태풍 피해 복구 지원 나선다

5일부터 사흘간 기동대원 150여 명 투입해 복구 지원

이웃 대구의 어려움 함께 나누고 대구경북 상생 의미 되새겨

경북도는 지난 9~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누적 강우량 266mm를 기록한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일대에 경북안전기동대(대장 유재용)가 파견돼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안전기동대는 광복절인 15일부터 50명씩 출동해 ▲침수가옥 토사 제거 및 가재도구 정리 ▲파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가족사 등 철거 ▲마을 수로 및 농로 정리 등의 작업을 지원한다.

또 자체 보유한 장비(1톤탑차, 차량용원치1개, 고압세척기3대, 워터펌프2대, 소방호스5개 등)를 활용해 일반 자

원봉사자들과는 다른 재난복구 전문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군위군은 지난 7월 1일자로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됐지만, 지금도 경북안전기동대에 군위군 대원 5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북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구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고자 이번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해 가까이 경북안전기동대를 파견하게 됐다.

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전 대원(현 168명)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



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 그간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대형 재난에도 인력을 보내 복구 작업을 도와왔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경북

도와 대구시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힘 모아 대처해왔다"면서 "경북안전기동대의 활약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군위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기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상황 점검

통영시,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제2차 청렴정책회의' 개최

통영시는 11일 청렴정책추진단에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제2차 청렴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영시 청렴정책추진단은 지난 5월 제1차 청렴정책회의에서 2023년도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계획과 부패취약분야의 연계성을 높이는 청렴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과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각종 지표의 추진 현황 점검,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과제의 문제점 및 해결책 모색,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한 부서간 협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한 청렴정책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신규 정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9월 간부공무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의 참여율 극대화, 찾아가는 부서맞춤형 청렴간담회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청렴도 평가지표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천영기 시장은 "오늘날 청렴의 의미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는 것을 넘어 민원인에 대한 친절,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까지도 포함한다"며 "늘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렴한 공무원, 청렴한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전남경찰청, 흥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특별치안활동 지속 전개

전남경찰청은 최근 물지마, 무차별식 '이상동기범죄' 발생 이후 모방범죄의 차단과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달 4일부터 시작한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역·터미널, 관광지, 행사장 등 도내 136개소의 다중밀집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단을 실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찰, 형사, 경찰관기동대, 특공대 등 경력을 투입하는 예방순찰 강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취지를 공감하는 도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의 경찰협력단체들과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가 합동순찰

을 함으로써 예방치안에 힘을 더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중밀집지역에 대해 1,570회의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고, 경찰 9,056명, 민간 5,081명이 가시적 치안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호 전남경찰청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벌어진 흥기난동 사건과 끊임없는

살인예고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순찰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통한 안심치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SNS에 나주역에서 칼부림·강간을 하겠다고 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 하는 등 앞으로 온라인상의 살인예고에 대하여 엄중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중배/기자

적 치안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호 전남경찰청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벌어진 흥기난동 사건과 끊임없는 살인예고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순찰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통한 안심치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SNS에 나주역에서 칼부림·강간을 하겠다고 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 하는 등 앞으로 온라인상의 살인예고에 대하여 엄중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동호/기자

유래없는 수해 피해에 군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김진열 군위군수,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전남경찰청은 최근 물지마, 무차별식 '이상동기범죄' 발생 이후 모방범죄의 차단과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달 4일부터 시작한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역·터미널, 관광지, 행사장 등 도내

136개소의 다중밀집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단을 실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찰, 형사, 경찰관기동대, 특공대 등 경력을 투입하는 예방순찰 강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취지를 공감하는 도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

의회 등의 경찰협력단체들과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가 합동순찰을 함으로써 예방치안에 힘을 더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중밀집지역에 대해 1,570회의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고, 경찰 9,056명, 민간 5,081명이 가시



경북도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채진원 전 주르완다 대사 임명

경북도는 지난 14일, 국제관계대사에 채진원 전 주르완다 대사를 임명했다.

채진원 신임 대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통상산업부를 거쳐 외교부에 임부했으며, 이후 외교부 경제협력과장, 주호주 공사, 주르완다 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국제경제 분야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관계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교부로부터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추천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채진원 신임 대사는 앞으로 2년간 경북도의 외교·통상 역량 강화, 국제행사 유치,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025년으로 다가온 APEC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위해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채진원 신임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지방외교를 선도하고 있는 경북에 근무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경북의 참 모습을 해외에 알리고 메이드 인 경북의 상품, 관광, 한류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영양군지회 '태극기 나눔행사' 개최

나라사랑, 영양사랑 태극기 달기

오도창 영양군수, "조국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밝혀

영양군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 한국자유총연맹 영양군지회(지회장 권석열)와 함께 '태극기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협조와 자유연맹의 유대를 다지는 사업수행을 목표로 현재 영양군지회는 180여 명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로 청소년 안보교육 및 안보견학, 태극기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해 한국자유총연맹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원들은 가정용 태극기 100개와 전단지 500장을 군민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태극기 달기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권석열 영양군지회장은 "나라사랑, 영양사랑의 마음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 이번 행사로 국경일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참여해 주신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태극기를 게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큰 손 중국인을 잡아라! 본격 유치 전개

부산시·부산관광공사, 중국 단체관광 본격 재개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

※중국 현지 여행사 및 비짓부산패스 앞세워 공격적인 유치 전략 추진

제3회 부산국제트래블마트에 중국 여행사 15개사 초청, 중국 온라인여행사와 연계해 비짓부산패스 할인, 중국 최대 메신저 연계한 항공권 및 호텔 할인 프로모션 등 진행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0일, 중국 단체관광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코로나19 이전 부산 방문 관광객 비중의 최우위를 차지하는 제1 관광 주력시장으로, 시는 팬데믹 이후 관광 재개에 맞춰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중국 매체 활용 홍보 마케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시와 공사는 올해 상반기, 부산시 단독 중국 현지 행사 추진과 부산관광상품 판매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중국 현지에서 호응을 얻으며 부산 브랜드를 높였고, 실질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 관광업계를 직접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먼저 한국관광공사 광저우, 칭다오, 우한지사와 공동으로 방한관광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우한, 충칭시 박람회 및

한중 여행업계 교류상담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의 매력을 알렸다.

무엇보다, 4월과 5월에는 부산 단독으로 부산의 봄꽃을 주제(테마)로 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고 6월에는 중국 주요 도시(베이징, 상해, 광저우)를 대상으로 부산 단독 현지 홍보캠페인을 개최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한 부산관광상품 세일즈 등을 진행하는 등 양국 간 관광교류가 어려운 시기에도 공격적인 홍보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상하이 '와이팡팅징'에 조성한 부산테마거리에는 방문객 13만1천 명이 찾아 중국 현지 매체 노출 수 9억 회를 기록했다.

또, 그간의 관광설명회 참가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판매 행보에도 나섰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 부산관광상품 70종을 판매해 2만3천 건 75억 원의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 방송의

실시간 접속자 수는 960만 명을 기록했다.

시와 공사는 씨트립 내 부산랜딩페이지를 개설해 내년 7월까지 지속적인 판매와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부터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망과 전략적 제휴(파트너십)를 맺고 부산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중국 현지에 전달해 왔다.

6월에는 주요 4개성(후베이, 저장, 상수, 산둥)의 방송사를 초청해 부산 특집 여행 방송을 제작하고 7월에 방영했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의 빚장 해제는 부산 관광시장 회복의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와 공사는 기존에 더해 큰 손님맞이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지난 4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3대여행사 중 하나인 중국청년여행사(마이투여행사) 등 다수의 여행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결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초석을 이미 마련한 상태이다.

현재 단체관광객 허용 시점에서 해외 송출여행사, 수도권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산송객 인센티브(7억 원)를 제공해 1만5천 명을 부산으로 본격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는 제3회 부산국제트래블마트에 중국 여행사 등 관광업 계 15개 사를 초청, 부산관광상품 개발 및 부산 관광업계와 사업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씨트립과 연계해 중국인이면 특전으로 비짓부산패스를 2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연계한 항공권 및 호텔 할인 프로모션도 전개해 약 1만 명 이상의 직접 유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9월 예정된 한국관광공사 상하이 케이-관광로드쇼, 베이징, 상하이 트레블마트에 참가, 베이징·상하이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일즈콜을 부산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2023년 내셔널지오그래픽 선정 최고의 여행지', '2022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라며, "우리는 관광시장이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현지 단독 행사 개최와 직접적인 관광상품 판매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에게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신규관광지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부산의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홍보 활동도 내실 있게 준비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안동시,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읍면동 통해 신청 접수

안동시는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2023년 지원 결정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마), 고구마, 참깨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품목당 재배 면적 1,000㎡ 이상 6,600㎡ 이하로 재배하고 대상 품목을 2022년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관내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이다.

재배 면적이 확인된 경우 생산비 이상의 가격으로 출하한 물량은 제외하고 생산비 미만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

만 그 차액을 지원한다.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 15,499kg, 산약(마)은 10,267kg, 고구마는 9,148kg, 참깨는 425kg이며,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이다. 가격안정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하고 안동시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대한민국 국제관광어워드 '우수상' 영예

11~14일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마케팅 부분 수상

영주시가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ITS)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국제관광어워드에서 마케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외 관광 정보 제공과 업계 간 활발한 상담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종합축제의 장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컨텍스트 전시장에서 열렸다.

시는 올해로 다섯 번째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영주시 관광자원 종합홍보 △다양한 홍보 이벤트(영주시 관광지 5곳 메모지에 적어 붙이기 & 카카오 채널 추가 등) △지역 특산물과 SNS 홍보 캐릭터 '힐리'를 활용한 기념품 전시 등을 통해 개성있는 마케팅을 선보였다.

특히 국립삼림치유원, 선비세상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적절히 활용한 마케팅을 펼쳐 지역관광지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마케팅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어워드는 지역별 관광홍보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시군이나 개별 관광 홍보 발전에 이바지한 시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이벤트·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한 시군을 대상으로 ▲콘텐츠 부문 ▲마케팅 부문 ▲부스 운영부문 ▲대중선호도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심사한 후 수상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선 8기를 맞아 영주시가 관광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투자를 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영주만이 중흥된 기존의 정적, 교육적인 관광에 액티비티한

체험형 관광을 추가해 영주관광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2023-2024 한 국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최신 관광산



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 및 국내 여행 경쟁력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119개 국내 지자체와 7개 해외 국가, 70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해 관

광 상품·문화·축제·레저 등을 선보이며, B2B 바이어 상담회, 귀농귀촌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함께 꾸며졌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통합문화이용권 읍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의성군은 7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읍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이용권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소외 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1인당 연 11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군청과 읍면사무소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7% 높은 5억여 원으로 인산되고 지역주민의 문

화예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소개, 문화이용권 사용 활성화 방안, 부정 사용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읍면 담당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많은 군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청소년·어르신 건강한 동반 성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티-멘토 마음성장 신나는 동행
윤경희 청송군수, "멘토링 문화체험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길"기대해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2023년 청소년안전망 멘토링 사업으로 건강한 동반 성장을 위한 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청소년안전망 멘토링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이 어른 친구와 함께 체험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전인적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가 청소년들은 지난 달 스토리를 담은 목공예체험에 이어 이번달에는 마음성장 신나는 동행을 주제로 영화를 보고 함께 소감을 나누는 문

화 체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멘토-멘티들은 불, 물, 공기, 흙 4개의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먼트 시티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애니메이션 '엘리먼트'를 관람하며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피로와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소중한 하루를 보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멘토링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2023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3개 부문 수상!

재무경영 활용 경진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한 '2023년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재무경영 활용 경진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생산·유통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업농촌 현장에 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예천군은 재무경영 활용 부문 대상(감천면 강경한),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부문 최우수상(보문면 황영숙), 미디어 크리에이터 부문 우수상(지보면 황성희)

을 받았다. 성백경 소장은 "정보화 경진대회를 통해 예천군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소통·연결 정보화로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정보화 농업인 육성을 위해 매년 연간 2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화농업인연합회를 지원해 관내 농업인의 정보화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서관, 책과 함께 달리는 독서마라톤 대회 개최

책 1쪽 읽기를 1m 달리기로 환산하는 72일간의 독서 대장정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

경북도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책과 함께 달리는 72일간의 독서마라톤 대회'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독서마라톤은 '독서왕국 경상북도'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로 독서활동을 마라톤에 접목시켜 책 1쪽을 읽으면 마라톤 1m 달리기로 환산하는 '책 읽기 경주'다. 목표치 3,000쪽을 읽고 마라톤 3km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에서 책 읽는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독서마라톤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방법은 경북도서관 누리집(www.gb.go.kr/lib/marathon)에서 회원 가입 및 독서마라톤 대회 코너에 참가 신청한 후 홈페이지에서 일정 독서량에 맞춰 독서일지와 감상평을 작성하면 된다. (* 독서량 목표치 이상 독서 가능)

독서마라톤 완주자에게는 ▲완주 인증서 수여 ▲도서 대출권수 확대(5권→10권) ▲연체 구제 쿠폰 발급('24년 1회)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마라톤일지의 내용과 성실성, 독서주제의 다양성 등을 평가해 우수 완주자를 선정(최우수상 3, 우수상 5, 장려상 7)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상현 경북도서관장은 "독서마라톤을 통해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책 읽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책과 함께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책 읽는 즐거움과 더불어 지혜와 지식을 함양하는 소확행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운동 전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054-650-3931~3935)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사업대행자 선정 등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은 기본계획 대비 약 0.1조 증가된 11.5조 원으로 확정
후적지는 대구시가 제시한 'NEW K-2' 개발계획 원안 반영
홍준표 시장, "대구·경북 미래 50년 변영 토대가 될 신공항을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조속 완공, 시가 대한민국 3대도시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혀

지난 14일(월),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돼, 대구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시는 지난 14일(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新 대구 군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대구 군공항)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부대양여 승인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부동산·금융·도시계획·건축 분야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부대양여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기부재산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11.5조 원 규모로 확정됐고,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NEW K-2' 개발계획이 원안 가결돼 기부재산과 동일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군공항의 이전을 위해 2014년 5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9년 만에 이루어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기부대양여)' 승인으로 대구·경북의 50년 미래를 담보할 중추적인 사업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선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시설 건설비와 지원사업비가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및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8월 26일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한편, 이번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그 주변 지역은 첨단 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K-2 후적지 210만 평은 글로벌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UAM(Urban Air Mobility : 도심 상공에서 운용되는 3차원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심 항공 교통수단)·로봇·자율주행 등 미래 인프라를 도입한다. 더불어, 신공항과 연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창의인재를 유치해 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New K-2'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첫발을 떼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추경호 부총리와 지역정착된 인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대구·경북 미래 50년 변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을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조속히 완공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재)예천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성료

출향 기업인 후원으로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예천의 꿈나무들
김학동 예천군수, "자랑스러운 출향인의 면모를 보여준 후원 기업인들을 본받아 글로벌 인재로 성장, 꿈을 이루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인되길"기대해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7박 9일간의 '글로벌 인재양성, 출향인 초청 고향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출향 기업인 회창그룹의 권중현 회장을 비롯한 권중갑 회장(스탠포드호텔코리아), 권일원 대표(미국 H-마트) 삼형제와 강평오 대표(우일음료)의 100% 후원으로 이뤄졌

다. 연수프로그램은 참여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에게 아이비리그 대학교(하버드, MIT, 예일) 탐방을 중심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자연사박물관 등 주요 사적지 견학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연수 마지막 날 학생들은 후원사의 초

청으로 H마트 본사를 방문해 세계시장에서 판매되는 예천군 농산물의 위상과 출향인들의 해외 활약상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했다. 이번 후원과 초청으로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 한명 한명은 감사의 글을 담은 감사장을 후원사에 전달했다. 연수에 참가한 학생은 "예천군민장학회 장학생으로서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뻛고, 해외연수를 통해 세계 무대를 직접 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배운 값진 경험은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커다란 동기부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학동 이사장(예천군수)은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출향인의 면모를 보여준 후원 기업인들을 본받아 청소년들도 글로벌 인재로 커서 향후 초청 출향인처럼 꿈을 이루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준 회창그룹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다같이 송송 요리경연대회 참가하세요"

다같이 송송 요리대회
본 행사는 '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골목상권활성화 상인·주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일환으로 '골목상권활성화 상인·주민교류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분들과 상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2023년 08월 09일 ~ 08월 23일
경연내용: 봉화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농·축산물을 이용한 요리 대회 (1차 결과물 제출 후 봉화사랑상품권 3만원 지급)
참가비 NO 상용 O.K 특가 Full
1차 심사(명상심사) 2차 심사(현장심사)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1등 당선작 레시피는 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골목상권활성화 상인·주민교류 프로그램 '밀키트 개발 및 제작' 사업의 레시피로 활용 예정입니다.

봉화군은 오는 23일까지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골목상권활성화 상인·주민교류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같이 송송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요리대회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봉화 특산물을 이용한 봉화의 대표 맛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참가 대상은 봉화군 지역주민 및 상인으로, 2인 이상 팀을 구성하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3대 가족 또는 내성시장 내 상인과 함께 참여 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오는 23일까지 홍보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참가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선착순 20팀을 모집하며, 1차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만 봉화사랑상품권 3만 원을 배부할 예정이다. 경연내용은 봉화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농·축산물을 이용한 요리대회로 요리과정 및 레시피 등을 담은 영상촬영물을 1차 영상평가해 6개팀을 선정하며, 2차 심사는 현장평가로 오는 9월 23일 제 27회 봉화송이한약육축제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심사에 통과 된 6개 팀에게는 1등 30만 원(1팀), 2등 20만 원(2팀), 3등 10만 원(3팀)의 상품이 주어지며, 6개 팀의 메뉴는 레시피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1등 팀의 메뉴는 밀키트 제작 및 특화메뉴 개발사업의 레시피로 활용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요리경연대회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민간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도정 협업기능 향상 기대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이뤄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히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광역시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SaaS형(Software As a Service)) :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구입이나 설치 없이 비용 지불 후 바로 사용 가능하고 사용량에 따라 비용 부과)을 도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7개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 업무시스템 'ERP'(예산·회계·인사·복무·급여) 및 '그룹웨어'(전자문서·메신저)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정보 호환성, 보안성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표준화된 예산·회계·인사·급여 및 전자결재 통합관리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및 SaaS7기반 업무시스템 구축 ▲모바일 그룹웨어 기능을 통한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워

크 환경 조성 ▲경북도 및 각 산하기관 주무부서의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 구현 등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전국시스템 이용 등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9개 기관은 차후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으로 기관별 산재하던 예산·회계·인사·급여 및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통일해 기관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업무 상황 실시간 공유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정 협업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산하기관 업무환경이 하나로 표준화되는 소프트웨어적 결합을 통해 기관 통합이라는 하드웨어적 결합과 더불어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SaaS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와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나 업데이트 및 재구축 없이 최신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의 일환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국가 공공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적용 의무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SaaS중심으로 재편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해왔고, 현재 SaaS기반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시·도와 유관기관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통합업무시스템은 공공부문 SaaS도입의 '경북형 모델'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이뤄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구미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파격 인센티브 부여

김장호 구미시장, "앞으로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특별승급,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일 잘하는 조직' 만들겠다"



구미시는 '능력은 펼치고, 성과는 보상 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8일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적극 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하고, 1~3등에게 특별승급이라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총 21건의 사례를 접수해 △사건검토(제외 대상 확인 및 기 적극 행정 수상 사례 여부 등) △투표 실시(직원투표 50%, 시민투표 25%, 국민투표 25%, 15건 선정) △적극 행정 실무위원회 심사(사례별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 10건 선정) △인사위원회 심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수공무원 및 인센티브를 결정했다.

영광의 최우수 사례는 공원녹지와 이정길 주무관이 추진한 '남동동 시설녹지 지목변경을 통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이 선정됐다.

이 사례는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남동동 24·10번지 일원 시설 녹지에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곳을

확인 위해 발로 뛰며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며칠 동안 서고를 뒤져 수십 년 지난 예전 서류를 찾았다. 확실한 증빙을 위해 1982년 담당 공무원을 만나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도시관리계획법령 검토 등을 통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지난 3월 지목 변경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후 신속하게 공원 조성 공사를 실시해 6월에 완료했으며, 42년간 방치됐던 공간을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밖에도 승강기가 없는 영구임대아파트에 LH와 협업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승강기 설치를 끌어낸 정미숙 주무관, 영성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구미역 후면광장 지하 주차장을 올해 6월 개방한 김영섭 주무관이 특별승급의 영예를 안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소극형 정을 방지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대비 선정 인원을 두 배 확대하고, 역대 최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앞으로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특별승급,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경주시, 덕동댐 홍수조절로 하류지역 '카눈' 태풍피해 막아

사전방류로 저수율 75% 마련, 이틀 동안 내린 비 받아들이며 현재 저수율 992.2% 기록

경주시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전 덕동댐의 사전 방류 등 선제적 홍수 조절 역할을 발휘해 태풍 피해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폭우를 대비해 덕동댐 100만 톤 사전방류로 저수율을 75%로 맞췄으며, 이틀 동안 여수로* 방류 없이 내린 비 900만 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난 11일 기준 99.2%(3200만 톤)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앞서 덕동댐은 지난해 역대급 규모인 '힌남노' 태풍 내습시에도 사전 저수율을 적절히 판단해 예비방류 없이 총 2000만 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류지역의 복천, 형산강

범람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덕동댐은 원래 홍수 조절용이 아닌 용수 전용댐으로 매년 저수율이 90% 이상으로 이월돼야 다음해 생활, 농업, 관광 용수에 공급에 지장이 없다.

댐건설 당시 100% 만수위를 채우고 여수로를 통해 자연월류 하는 형식의 댐이었으나, 최근 극한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유동적으로 예비방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가을태풍에 대비해 당분간 일일 10~30만톤 예비 방류로 저수율을 90% 초반까지 유지해 내년 용수확보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덕동댐의 방류시설은 '여수로' 2곳과 '방류수문' 4곳 등 총 6곳이다. 여수로 2곳은 저수율이 만수위를 넘어서면 자연 월류 되도록 설계됐고, 방류수문 4곳은 안전을 위해 방류 기준에 따라 개방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화랑대기 축구대회 또는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더운 여름철 북천둔치 주변이 시원한 친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류 보문호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당분간 덕동댐의 예비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주시 덕동댐

홍준표 대구시장, "올 하반기, TK신공항의 성공적 출발이 최대 과제"

2024년도 예산안, 극한의 재정 다이어트 기조로 편성 지시 동성로의 밤을 밝혀, 젊은이들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 강조 대구치맥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 주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앞으로 달빛고속철도가 신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돼, 남부권 경제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14일 (월), 대구광역시청 산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눈 앞에 닥친 일에만 몰두하고 수습하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점이 대구 미래 50년, 나아가 100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해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보고 후, "내년도 재정여건 상황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되고, 마른 수건을 짜내는 단계를 넘어서 극한의 재정 다이어트 기조로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온 보조사업, 행사성·선심성·현금성 지원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재난안전실의 '태풍 카눈으로 인한 군위군 피해' 관련 보고 후,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지역에 2명 발생했으나, 안전사고로 분류됨에 따라 별다른 지원체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들을 위해 수해 사망사고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을지연습에 대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8.23. 수)이 실시돼 주민대피와 교통통제가 시행되는 만큼, 대시민 홍보와 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동성로 청년버스킹 상설공연 확대' 보고 후, "동성로의 밤을 밝혀야 상권이 살고, 젊은이들이 넘쳐나게 된다"며,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동성로가 청년예술인 중심의 대구 대표 공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시주택국의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안

전점점' 보고 후, "안전점검 결과와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떠나, 지역의 모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협의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경제국의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 보고 후, "화재, 군중밀집, 태풍의 3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라"며, "아울러, 대구굴기 원년에 걸맞은 축제로 기획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TK신공항건설 추진단이 구성되면 연내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접어들게 돼, 모든 실적이 협조해 신공항을 출발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이다"며, "최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 발의에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앞으로 달빛고속철도가 신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돼, 남부권 경제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축분바이오차 생산시설 시범사업 준공식

김주수 의성군수, "이번 준공으로 가축분뇨의 새로운 활용과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경축순환농업 이 정착될 수 있는 성공모델 구축에 최선노력"밝히



의성군은 지난 9일, 안계면 신기농장(대표 박창순)에서 김주수 의성군수, 서준환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경북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분바이오차 생산시설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해,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시설 준공에 의미를 다졌다.

축분바이오차 생산시범사업은 가축분

노 퇴비의 농경지 살포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토양 양분과잉 문제 등 한계에 다다른 기존 퇴비화 이외 새로운 처리방안 마련이며,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성군의 추진 방향과 적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바이오차(Bio char)는 바이오매스(Biomass·생물자원)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나무,

가축분뇨·농업 부산물 등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350~700°C의 열을 가해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로 만든 것이다.

축분바이오차는 고열에도 질소, 인, 칼륨 등 영양성분을 보유해 목질계 바이오차에 비해 양질의 토지개량성분과 비료 효과를 가진 친환경 재료로 토양에 탄소를 저장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감량화와 유박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비료 원료의 대체재로도 활용될 수 있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군에서는 축분바이오차생산시설 완공을 통하여 새로운 축분 처리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된 축분바이오차를 가치소비 시대에 맞는 저탄소 농작물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축분바이오차 생산시설 준공으로 가축분뇨의 새로운 활용과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경축순환농업 이 정착될 수 있는 성공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펼쳐~

윤경희 청송군수,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여해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바래

청송군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회장 박경순)에서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8개 읍면 임원들은 광복절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고, 태극기를 교환 해주는 등 태극기 달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으며, 박경순 회장은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여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와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상주시 '한 달 지역살이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살고싶은 도시로 거듭나는 상주 홍보 강영석 상주시장, "한달살이가 상주의 매력을 알리고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해 보게 된 계기가 됐길"바래

상주시 이인삼각 협동조합은 한 달 지역살이 프로그램 '우리들의 여름방학' 수료식을 지난 11일 휴사이드왕산에서 개최했다.

지난 한 달간, 지역살이, 대안적인 삶, 귀농, 창업,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부터 삶의 방향을 고민하거나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타지역 청년 12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상주에 대한 매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한 달여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참여자 전원이 참석하여 수료장을 받고 한 달간 경험한 지역살이에 대한 소감을 공유했다. 청년들은 이번 지역살이가 지역민들과 교류하며 지역을 경험하고 상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한달살이가 상주의

매력을 알리고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해 보게 된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지속적인 인연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전남도, 장애인자립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도전하세요

전남도, 50시간 교육 수료 필수...권역별 교육기관 운영

전남도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 나선다.

교육과정은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0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이 있으면 교육 내용 중 '활동지원의 실제' 과목 8시간을 감면받는다.

교육 신청은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권역별로 ▲중부권 전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나주) ▲동부권 광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목포)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절차는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광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에는 72개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5천100여 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단가는 시간당 평일 1만 5천570원, 심야·휴일 2만 3천350원이며,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 시 시간당 3천~4천5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과 그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 없이 자립해 생활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대만 잼버리, 순천에서 K-정원, 문화 체험으로 힐링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를 비롯해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찾아

대만 잼버리 대원들이 순천을 찾아 한국의 정원문화와 문화유산을 체험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서울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을 마친 46명의 대만 잼버리 대원과 관계자는 성황리에 진행 중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해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순천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봤다.

12일 순천에 도착한 대만 잼버리 대원들은 예코촌에서 머무른 뒤 13일, 본격 일정을 나섰다. 대만 잼버리가 찾은 첫 방문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는 대원들을 위한 환영 퍼포먼스를 열고 대원들을 맞이했다. 천제영 사무총장은 "박람회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탁 트인 정원 안에서 힐링하면서 대원들 간 즐거운 추억 쌓고 가셨을 한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만 잼버리 대원들은 개울길광장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에서 물장구치며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호수정원, 각국의 세계정원과 가든스테이 실랑계 등 국가정원 곳곳을 자유롭게 즐겼다. 그리고 스카우트 캠프를 탐승해 순천만습지까지 탐방했다. 순천만은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포함된 곳으로 이번 박람회 권역 중 하나다. 대원들은 여름철 푸른 갈대군락과 함께 다양한 갯벌 생물들을 관찰하며 순천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

14세의 슈젠젠(HSU, CHEN-CHEN) 잼버리 대원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정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평소에 접하기 힘든 태국정원, 네덜란드정원 등 각 나라별

특색을 잘 담아낸 정원이 참 신선했다.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다. 즐거웠다"며 박람회장을 다녀간 소감을 전했다.

대원들은 이후 대한민국 3대 읍성 중 하나인 낙안읍성과 한국의 1960~80년대를 재현해 놓은 드라마촬영장으로 향해 순천이 지닌 생태자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멋이 가득한 관광지 탐방에 나선다.

4월부터 개최 중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570만 관람객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치러내고 있다. 지난 달 30일, 31일 1박 2일에 걸쳐 잼버리에 참가하는 독일 대표단 2천여 명은 정원박람회를 탐방하며 "국가정원에 오길 잘했다. 꼭 다시 오고 싶다", "순천이라는 도시가 참 깨끗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며 감탄을 표하기도 했다.

인선 8기에 들어서며 9개월 남짓한 짧은 준비기간에도 오전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 가든스테이 등 순천만의 창조적인 정원과 함께 안전한 행사 운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은 더욱 돋보이고 있다. 아울러 조직위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원별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박람회 어플까지 개발하는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상황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완성도 높은 모습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성공적인 국제 행사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편 대만 잼버리 대원들은 14일, 서울로 이동해 여러 체험활동을 즐긴 뒤 15일 귀국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함평군, 중대시민재해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전남 함평군은 재해 발생 시 시설물 관리부서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13일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 주재하에 부군수실에서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중대재해팀이 합동으로 '중대시민재해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지난 1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태풍으로 함평을 함평천 제2지구 우안제 제방이 붕괴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상황을 모의해 진행됐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가정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점검했다.

정훈석 함평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대비와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신중년 일자리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은퇴한 경력자, 전문가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원 해설 및 식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월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허브밸리 신중년 프로그램에서 '한 평의 정원 가드너'와 '숲 치유 정원사' 4명의 팀원은 식물관리와 정원조성,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리산 허브밸리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서 주관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오감맞춤 생태 체험, 전북 교육청 학생수련원에서 주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립공원 청년 학교 프로그램 등 허브밸리 체험 코스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기관에서 지리산 허브밸리를 방문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지리산 허브밸리를 방문한 관람

객은 103,129명이고, 이중 허브밸리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관람객은 1,586명이라고 밝혔다.

사전예약과 상설운영이 병행되고 있는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은 신중년정원사로부터 자연정원에 담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포트 만들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신중년 정원사들은 단순한 해설과 안내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식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정원문화를 새롭게 느끼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새 단장 마치고 문 연다!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 9월 1일 재개관

완도군은 장보고기념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8월 1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장보고기념관은 해상 무역 왕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해양 개척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개관했으며 내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총 26억 원을 투입해 2021년 9월부터 전시 콘텐츠 개편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장보고기념관 1층에는 동아시아 바다를 누빈 장보고 선을 복원하여 거센 파도를 향해하는 정신을 표현했다.

2층에서는 장보고 대사와 관련된 '지도, 바다, 적산법화원, 금(무역), 도전, 자기' 등을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특히 눈으로만 보는 관람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보고 대사 일대기', '정해진 과거' 등 인터랙티브 영상을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평일에 하며, 9월 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중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하여 재개관하는 장보고기념관이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떨친 장보고 대사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울/기자



나주농업진흥재단-빛가람종합병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

병원 구내식당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재단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 기관 지정



신선하고 안전한 나주로컬푸드가 학교와 공공기관에 이어 병원까지 확대·공급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11일 나주농업진흥재단과 빛가람종합병원 간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빛가람종합병원 구내식당에 나주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한다. 재단에서는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 기관으로 빛가람종합병원을 지정했다.

이로써 신선한 산지 농산물 공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 병원 환자·직원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병원 경영 활성화라는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오경규 대표원장은 "건강한 먹거리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신선한 나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돼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범 재단 부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선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농가와 업체,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4월 개원한 나주빛가람 종합병원은 신경·정형·일반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9개와 220개 병상, 인공신장센터,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중형종합병원이다.

김영안/기자



전북도, 금융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본격 추진!

혁신도시 내 금융 혁신 新 산업분야 스타트업 지원공간 조성



전라북도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가 금융 혁신 新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본격 육성을 위해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를 조성한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사업'은 지역형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

및 혁신도시 상가 공실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도는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확충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실 상가 1개 층(560m²)을 임대해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입주기업

에 사무실 제공, 임대료 지원 및 기업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기업체 입주공간(10개실), ▲회의실 및 세미나실, ▲오피스페이스(교육장), ▲공용 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스타트업 창업보육공간인 입주공간은 2~6인실의 독립된 사무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스마트한 첨단시설의 공유오피스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기업수요에 따른 공용 테스트 기기를 구비하여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행사, 기업맞춤형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오피스페이스와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공용라운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기업을 공개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는 핀

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 혁신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도내·외 기업이다.

입주 대상으로 선발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사무공간이 제공되며,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평수에 따라 50~80%까지 입차료가 지원된다.

입주기간 동안 전문가 교육, 멘토링, 유관기관 및 지원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전세창 전북도 기업유지지원실장은 "혁신도시 내 금융 창업보육 공간 제공과 금융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으로 전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장가능성을 가진 금융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하반기 진도개 심사원 양성 교육 실시

9월 1일까지 접수...

진도개 혈통 보존·관리 전문성 강화 기대

진도군이 진도개 혈통 보존·관리와 전문 지식·소양을 갖춘 심사원 양성을 위한 진도개 심사원 양성 교육을 개설·운영한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교육에서는 도그쇼의 이해, 도그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스텐더드 업무와 심사규정 등 참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알찬 교육으로 진행됐다.

의 심층적 이해와 객관적인 심사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학력, 나이, 성별 제한 없이 진도개를 사랑하는 진도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심사원 양성과 자질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172년 전 막걸리vs삼페인, 나주에서 다시 써지는 한·불 외교사

1851년 '나주와 프랑스 첫 만남' 주제로 韓-佛 학술 포럼 21일 개최

한국과 프랑스(한·불), 양 국가의 외교적 첫 만남의 계기가 됐던 1851년 프랑스 선박 비금도 표류 사건을 172년 만에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 포럼이 전라남도 나주에서 열리게 돼 주목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1일 오후 2시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불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포럼은 그간 알고 있던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사의 판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불의 공식적인 첫 만남은 병인양요도 조물 우호 통상조약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양 국가의 첫 만남은 1866년 프랑스인 신부가 처형된 것을 빌미 삼아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조선의 강화도를 공격했던 사건인 '병인양요'로 알려져 있다.

이후 쇄국정책을 일관했던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1886년 양국 간 '조물 우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병인양요보다 15년, 조물 우호 통상조약보다 35년이나 앞선 1851년 한국(조선)과 프랑스가 첫 외교적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프랑스의 한 교수에 의해 밝혀져 화제가 됐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프랑스 파리7대학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에 따르면

1851년 프랑스의 고래잡이배 나르발호가 전라도 연안 근처에 좌초되면서 선원 20여 명이 표류돼 비금도에 도착했다.

불행한 소식을 접한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는 선원들을 구출하고자 비금도를 방문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선원들은 조선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당시 비금도(신안군)는 전라남도 일대를 관할했던 나주목의 나주제도(羅州諸島)에 속했다.

이에 몽티니 영사는 귀국 전날인 1851년 5월 2일 나주목사 이정현과 자국 선원들을 잘 보살펴준 조선의 인도주의와 우호에 감사하는 기념 만찬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서 이정현 나주목사와 몽티니 영사는 조선의 전통술과 프랑스의 삼페인을 함께 나눠 마셨다. 만찬 이후 몽티니 영사는 응기주병 3병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응기주병은 현재 해당 박물관에 한국 유물 제1호로 소장되어 있다.

해당 사건은 한국과 프랑스의 첫 교류가 평화롭고 우호적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주프랑스대한국대사관은 5월 2일을 한·불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날로 정해 올해 처음으로 파리 세브르 국립도

자기박물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물관은 172년 전 그날 한국 전통술을 담았던 응기주병을 특별 전시했고 이 소식이 나주에도 알려졌다.

나주시는 이번 학술포럼에 주한프랑스대사관 요한 르 탈렉 문정관,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와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등을 초청했다.

172년 전 한·불의 첫 만남의 계기가 된 비금도 표류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불 교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포럼은 윤병태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2부(주제발표·토론)로 진행된다.

1부는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가 '1851년 한·불 첫 만남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김희태 전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양국 사료 연구성과,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2부에서는 '한·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류한오 전 광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순남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영미 동신대 교수,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정종대 농촌공간연구소장, 나주시·신안군 학예연구사 등 7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행사는 포럼을 후원한 전라남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

단을 비롯해 국제 문화 교류 관련 기관·단체,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교사, 이정현 나주목사 후손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관내 보존돼있는 1851년 당시 조선의 대리자로 기록된 이정현 나주목사의 선정비를 소개하고 2023년 양국의 재 만남을 기념해 172년 전 첫 만찬에 사용했던 응기주병을 재현해 전시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한·불 양국 외교사를 새롭게 바꿀 172년 전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자 하는 나주의 노력이 한·불 양국의 우호와 교류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화순군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서비스 환경 조성

화순군은 이·미용업소 중 노후되고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등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소 12개소를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8월 2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현장 조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내 ▲도배 ▲장판 ▲세면대 교체 ▲화장실 개보수 ▲간판 등에 최대 300만 원(자부담 50% 이상)을 지원받는다.

단, 지원의 제한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

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및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와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한 업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8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호/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강원도 '힐링오션트레일 in 아리바우길' 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9. 17. 강릉 경포호수광장에서 관광객 대상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강릉시와 강원관광재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조성된 아리바우길의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9월 17일 강릉에서 트레일러닝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아리바우길은 정선-평창-강릉으로 이어지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탐방로이며, 이번 대회는 아시아 힐링 관광 수도로의 도약을 선포한 강릉시의 관광 비전에 맞춰 '힐링오션트레일 in 아리바우길'을 주제로 10km 코스로 구성하며, 강릉 경포호수와 해변을 배경으로 달린다.

참가는 비경쟁 부문 힐링과 경쟁 부문 오션으로 구분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500명이며, 참가자들에게는 협찬사인 노스페이스의 기념 티셔츠, 폴딩 박스, 스포츠타월, 완주기념 메달 등이 주어진다.

또한,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요가 스트레칭, 버스킹 공연, 로컬 플라마켓도 열린다.

재단은 숲길이나 흙길, 다양한 환경을 탐험하듯 달리는 운동인 트레일 러닝 대회 개최를 통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적합한 관광형 레저콘텐츠를 개발하고, 강릉의 운동하기 좋은 아름다운 길을 알리면서, 여행 중에도 운동을 취미로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관광재단 최동석 국내마케팅팀장은 "자연 친화적 레저활동인 트레일러닝 콘텐츠를 접목한 '힐링오션트레일 in 아리바우길'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의 또다른 매력인 아리바우길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태백시, 하계 대학생 교육캠프 성료

태백시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계 대학생 교육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연세대-황지고 7월 10~14일 ▲연세대-철암고 8월 1~4일 ▲서울대-장성여고 8월 8~10일로 학교별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캠프에 참석한 멘토-멘티 학생들은 무더위와 태풍 등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으로 멘토-멘티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관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멘티 학생 중 한 명은 "내년에도 또 캠프를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진로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됐다"라며, "대학생 교육캠프가 내년에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설문에 답했다. 또한, 멘토 대학생들 대부분은 "태백시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프로그램 준비가 수월했다"라며 태백시의 하계캠프 지원에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대학생 교육봉사캠프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관내 지역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진로를 함께 탐구-탐색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충남도-쓰촨성 민간공공외교 성과 '속속'

지난 6월 김 지사 중국 순방 당시 쓰촨성장과 약속한 스포츠 교류 첫 발

올해로 자매 5주년을 맞은 충남도와 중국 쓰촨성간 민간공공외교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대학 배드민턴 선수단을 쓰촨성에 파견해 공동 훈련 및 우호 경기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지난 6월 김태홍 지사가 쓰촨성을 방문했을 당시 활치양 쓰촨성장과 약속한 민간교류 강화의 일환으로, 양 지역 스포츠 교류 추진의 첫 걸음이다.

도는 이번 스포츠 교류를 위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백석

대 배드민턴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쓰촨체육직업대학 배드민턴 선수단과 상호 공동 기술훈련, 우호경기, 지도자교류 등을 진행한다.

훈련 및 우호 경기는 지난 8일 폐막한 청두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을 사용하기로 해 훈련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였다.

윤주영 도 투자통상정책관은 "이번 스포츠 민간교류를 시작으로 양 지역 지사와 성장이 약속한 민간교류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축제 아직 끝나지 않아"... 크라이닝넛에 5천 관객 열광

'아트밸리 아산 제2회 록 페스티벌' 3일간 1만여 명 찾아

'아트밸리 아산 제2회 록 페스티벌'이 3일간의 뜨거운 열정을 마무리했다.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는 크라이닝넛, 노브레인, 육종대 밴드, 몽니 등 국내 대표 록그룹들이 대거 출연했고, 단단, 수퍼비, 홀리밴 등 최고 대세 아티스트들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주최 측은 3일간 록 페스티벌에 모인 관람객 수만 1만여 명,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 크라이닝넛 공연에만 최고 5천 명 이상의 관객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박경귀 시장은 "축제 전날까지도 제6호 태풍 '카눈'의 기세가 거세 조마조마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데, 벌써 록 페스티벌이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환호하며 즐긴 여름밤의 열기는 쉬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록 페스티벌은 끝났지만,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은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빛음악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낮에 진행된 워터슬라이드, '이순신 물총대첩'에만 참석하고 떠난 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어떤 이들은 여름밤 신정호 야외음악당 잔디밭 곳곳에 돛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공연을 즐겼고, 또 어떤 이들은 무대인 스탠딩석에서 신나게 점프하며 록 스피릿을 온몸으로 표출했다. 매일 밤 관객들이 스마트폰 플래시로 만들어 낸 은하수 역시 장관을 이뤘다.

하지만 느긋하게 공연을 즐기던 이들 도 크라이닝넛의 대표곡 앞에서는 속절없었다. "록! 록! 록셈브르크! 아! 아! 아르헨티나!"를 소리높여 외쳤고, '말달리자'가 공연될 때는 잔디밭에 앉아있던 이들이 대부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열광했다.

황금연휴를 맞아 아산을 찾았다가 공연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는 공OO(경기도 성남시) 씨는 "자연이 어우러진 공연장과 여름밤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크라이닝넛의 '밤이 깊었네'를 들으며 휴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황금연휴를 맞아 아산을 찾았다가 공연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는 공OO(경기도 성남시) 씨는 "자연이 어우러진 공연장과 여름밤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크라이닝넛의 '밤이 깊었네'를 들으며 휴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반도체 소재기업 (주)지큐엘과 투자협약 체결

2025년까지 470억원 투자, 문막공장 신설 및 신규고용 효과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14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반도체 소재기업인 (주)지큐엘(Goble Quartz Leader)과 원주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육영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지큐엘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과 학산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 공정장비용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 공정용 부품의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이번 원주 공장의 추가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주)지큐엘은 원주 문막농공단지 부지에 건축 및 설비 등 47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3월까지 2천9백여 평 규모의 실리온 잉곳 제조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12월까지 투자가 모두 완료되면 원주시에는 약 245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이 거래하는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관 효과에 따라 향후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지큐엘의 공장 신설 투자는 원주가 반도체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기업이 원주에 잘 정착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현장방문'천안 K-컬처 박람회 방문으로 찰물(察物) 의정 실시

천안시의회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이상구(대표), 강성기, 김강진, 노종관, 류제국, 이종만, 육종영 의원'은 11일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방문했다.

그동안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이상구(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참여의원(강성기, 김강진, 노종관, 류제국, 이종만, 육종영 의원)은 간담회 개최 및 타 지역 현장방문 등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천안 K-컬처 박람회 현장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찰물 의정을 실현했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천안 K-컬처 박람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이 기간 동안 주기적인 방문으로 K-컬처 박람회의 전반적인 진행을 살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연구의 견을 제시할 것임을 발언했다.

류제국 의원은 태풍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를 위해 수고한 분들을 격려했으며 이종만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의원들과 앞으로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천안 K-컬처 박람회는 백석대학교 최우석, 이광욱 교수와 함께 방문했으며 연구진은 천안 K-컬처 박람회 기간(8월11일~15일) 동안 시민참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연구에 반영할 것과 9월 중순에 있을 중간보고회 및 발전 토론회 또한 다부지게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천안 K-컬

처 박람회는 신(新)한류 문화의 K-컬처 박람회로 다양한 콘텐츠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와 문화공연, 전시

회, 산업 포럼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추진

충북도 보은군 (주)케일 업무협약 체결, 공모사업 공동 대응

충청북도와 보은군, (주)케일(이하 케일)은 14일 충청북도청에서 곤충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4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최재형 보은군수, 김용욱 (주)케일 대표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충청북도 내 곤충산업의 거점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12월 공모를 통해 2024년 4월경 최종선정 예정이며, 곤충산업관련 생산·가공·유통·지원시설 등 구축에 국비 100억이 지원된다.

현재 국내 곤충업 신고현황은 '12년 908개소에서 '21년 3,012개소로 증가

했으며, 우리 충북은 286개소로 전국의 9.5%에 해당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남부권 공동 상생모델을 만들어 그린바이오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곤충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충북이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화학제품산업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반려동물의 사료로 활용되는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2024년 곤충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사육환경과 가공·유통 등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여 충북의 균형발전을 넘어 국내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 신규 지정

'인공지능(AI)기반 복부대사질환 분석시스템', '휴대용 방사선 오염측정기', '다기능 사물인터넷(IOT) 가스콕' 등 39개 혁신제품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제품에는 건강·의료(9개), 생활안전·재해예방(8개), 교통·환경개선(12개), 에너지 절감(4개) 등 국민건강 증진, 사회안전예방과 같은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제품들이 지정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건강·의료분야의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영상 판독시스템'과 복부 대사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대사질환 분석 시스템' 등이 있으며, 안전·재해예방 분야는 '다목적 휴대용 방사선 오염측정기'와 '감염성 폐기물 밀봉포장 처리기', 가스누출을 자동 감지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해주는 '다기능 사물인터넷(IoT) 가스콕' 등이 있다.

혁신제품은 지정기간(3년)동안 혁신

장터를 통해 금액한도 없이 공공조달 수의계약과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의 시범구매와 공공기관 구매상당과 같은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판로지원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부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선정 공고'를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제제물품식별번호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총괄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강원도, 반도체기업 (주)지큐엘 원주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반도체 기업유치 쾌거

강원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4시 45분에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도, 원주시, 반도체기업 (주)지큐엘 간에 문막농공단지 원주공장 신설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지큐엘은 2004년 10월에 설립됐으며,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과학단지에 위치한 반도체용 공정장비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반도체 소재공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50여 대의 정밀 가공설비 구축으로 기술적 향상과 함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다.

(주)지큐엘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반도체 공정용 부품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소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실리콘 원소재 직접 제조를 위

한 최첨단 시설을 준비하고자 공장의 추가 신설을 결정했다.

(주)지큐엘은 원주의 수도권 접근성, 저렴한 지가 및 높은 부지확장성, 풍부한 용수와 전력, 반도체교육센터 중심의 인력공급시스템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투자사업지로 선택했다고 밝혔으며, 강원도 원주 문막농공단지 부지 9,756㎡(2,951평)에 건축 및 설비에 47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670㎡(2,925평) 규모의 실리콘 잉곳 제조 공장을 2023년 9월 중 착공하여 2024년 3월 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연매출 500억원 이상 증가와 자동화 기반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할 45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반도체기업 투자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의 초석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주)지큐엘이 원주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만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공장 신설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업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차별화된 규제개선 및 특례반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투자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며, 원주에 공장 신설 투자를 결심한 (주)지큐엘 측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2개 기업 투자유치

총 81억원 투자, 61명 고용 신규 고용창출 기대

유망 중소기업인 (주)다성물산, (주)에이스안전유리 등 2개사가 남원 일반산업단지내 17,441㎡에 투자를 확정하고 총 81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1명을 새롭게 창출한다.

남원시는 8월 14일 (주)다성물산, (주)에이스안전유리와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주)다성물산은 조미김 및 김자반 등을 생산하며 전국에 영업망을 갖춘 해조류 전문기업으로 9,989㎡ 부지에 총 40억원(고용 37명)을 투자해 HACCP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량생산 제조라인을 일반산업단지에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본사도 경기도 안양시에서 남원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주)에이스안전유리는 국내의 산업용,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안전유리 가공 설비를 보유한 기업으로 산업용 안전유리 생산라인 체계화를 위해 부지 7,452㎡에 41억원(고용 24명)을 투자한다.

두 기업의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는 저렴한 지가와 즉시 입주 및 착공 가능한 부지, 광양향과 인접으로 수출을 위한 수송과 접근성이 용이한 점 등을 장점으로 보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식 시장은 "고급리 장기화 및 경기 위축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미래

산업 도시 남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생활안전(3개)

사진	혁신제품 개요		
	혁신제품명	위치조절이 가능한 요추지지장치 수단을 갖는 사무용 의자	
	기업명	성용기업(주)	기수행R&D (17)공정품질
	혁신개요	▶ 사용자의 요추 또는 허리를 지지하는 프레임에 위치제어기술을 적용한 사무용의자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도록 조절가능한 제품 ▶ 사용자의 요추 또는 허리를 보호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및 업무효율 증진	
	활용분야	학교, 은행, 기관 등 사무자동화(OA)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사진	혁신제품 개요		
	혁신제품명	조류중독 방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기업명	(주)아이델	기수행R&D (20)기술혁신
	혁신개요	▶ 압출공정을 통해 제품표면에 직접 디자인 문양을 가공하여 조류중독으로 인한 폐사를 방지하는 투명 방음벽용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 기존의 스티커 부착방식과 달리 추가공정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며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	
	활용분야	한국도로공사, 지역 시설관리공단 등 방음벽 시공 관련 공공기관	

사진	혁신제품 개요		
	혁신제품명	보안이벤트 추적·대응시스템(TA-SR V2.1)	
	기업명	(주)아이티스테이션	기수행R&D (18)기술혁신
	혁신개요	▶ 보안이벤트 추적 및 대응시스템으로 보안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보안이벤트를 자동으로 추적하여 분석 후 대응하고 증적PE파일 확보를 통해 이벤트 발생 이후에도 포렌식 진행가능한 보안시스템	
	활용분야	SIEM, SORA, ISIP, 내PC지킴이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공공기관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광명도시공사 Gwang 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경북교육청, AI시대를 선도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

임종식 교육감, "학생은 초지능, 초연결 세상에서 살아갈 미래 인재들로, AI·메타버스 등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한 영어교육으로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토록 지원"

경북교육청은 AI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 영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막힘없는 생활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디지털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영어교육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새롭게 기획·추진하고 있는 '원어인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은 디지털 시대에 급속히 변화하는 SW(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반 영어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19:00~20:20) 메타버스 수업 공간에서 2인 1조로 구성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가 실시간으로 영어원서(동화책)를 활용한 영어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수업을 제공한다. 특히 연간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원서 수업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는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도내 초·중·고 영어 담당교사 60명을 'AI 활용 선도교사'로 선정해 AI 학습 시스템을 영어교육에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도교사들은 AI 팽톡, LG CNS 제공 스피킹클래스, 버터타입, Chat GPT 등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AI 학습 시스템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일반 학교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BS에서 제작·보급하고 있는 AI 팽톡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초등학교 영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실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은 앞



로 초지능, 초연결 세상에서 살아갈 미래 인재들이며, AI와 메타버스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추진해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학부모기자단, 자녀와 함께 방송국 견학에 나서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체험 및 전문역량 강화
홍중선 소통협력관, "학부모의 시선으로 현장 중심의 우수한 경북 교육소식 발굴 다양한 매체로 널리 홍보되도록 학부모기자단 활동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겠다"

경북교육청 학부모기자단이 지난 14일(월), 자녀들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 체험을 위해 TBC 방송국을 견학했다. 학부모기자단은 올해 4월부터 TBC와 협업해 경북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리포트 뉴스로 제작해 TBC '지금은 지방시대' 프로그램에 격주마다 송출하고 있다. 이번 견학은 학교 현장 취재 활동에서 벗어나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고,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견학은 학부모기자단 중 희망자 22명과 자녀 33명이 TBC 방송국 내 시설을 둘러보고, 방송 제작 관련 특강과 함께 '지금은 지방시대'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지금은 지방시대' 프로그램인 '교육 이 사람' 생방송 인터뷰에서는 학부모기자단이 방청하는 가운데 2019년부터 1기 현재 5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김지혜 기자가 출연해 학부모기자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홍중선 소통협력관은 "학부모의 시선으로 현장 중심의 우수한 경북 교육소식을 발굴하고 SNS(누리소통망), TV 등 경북교육청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학부모기자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중선 소통협력관은 "학부모의 시선으로 현장 중심의 우수한 경북 교육소식을 발굴하고 SNS(누리소통망), TV 등 경북교육청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학부모기자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날 견학은 학부모기자단 중 희망자 22명과 자녀 33명이 TBC 방송국 내 시설을 둘러보고, 방송 제작 관련 특강과 함께 '지금은 지방시대'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지금은 지방시대' 프로그램인 '교육 이 사람' 생방송 인터뷰에서는 학부모기자단이 방청하는 가운데 2019년부터 1기 현재 5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김지혜 기자가 출연해 학부모기자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홍중선 소통협력관은 "학부모의 시선으로 현장 중심의 우수한 경북 교육소식을 발굴하고 SNS(누리소통망), TV 등 경북교육청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학부모기자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22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초등부 우승

여자축구 최강 상대초등학교, 다시 한번 왕좌에 오르다

상대초등학교는 지난 3일부터 8월 12일 까지 경남 창원에서 펼쳐진 제22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초등부 우승이라는 또 한번의 쾌거를 달성하였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창녕군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초등부 18개 팀이 참가했다. 상대초는 예선에서 대양초(대전), 참성초(세종), 명서초(경남), 안성WFC(경기), 광양중앙초(전남)를 가볍게 이기고, 조 1위로 올라 6강에서 도남초(제주)를 제압하고 4강에 진출하였다. 4강에서 가림초(인천)를 만나 4:0으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 전통의 강호 라이벌인 남강초(진주)와의 결승전에서

전반 승재희의 선제골과 후반 김하울의 썩기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굳혀, 결국 2:0의 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축구부 주장 6학년 김하울 학생은 "올해 춘계대회에서 남강초에게 패배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지난 여왕기대회, 소년체전에 이어, 이번 우승으로 말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더욱 열심히 해서 올해 남은 추계 연맹전에서도 우승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상대초 여자축구부를 이끌고 있는 강나영 감독은 "결승전이 낫 경기라 날씨가 무척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힘을 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잘

뛰어준 선수들에게 무척 감사하고 또한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대회에서 최우수선수로 6학년 김예원 학생이 선정됐고, 최우수 감독 강나영, 최우수 코치 한경하, 최우수 GK상은 박지민 학생이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상대초 이광진 교장은 "전국소년체전, 여왕기대회 우승 기쁨이 아직도 생생한데 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감독님과 코치의 지도에 따라 선수들이 모두 믿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운동한 결과 우승을 차지한 학생들이 매우 믿음직하고 사랑스럽다."며 소감을

말씀하셨다. 이번 대회기간내에 학부모님들께서도 경기장을 방문하여 직접 준비한 응원도구로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신 덕분에 선수단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상대초 여자축구부는 2002년 창단,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016년 금메달 이후로 매년 꾸준히 메달을 수상해왔으며 2022년, 2023년 전국소년체 육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초등여자축구부의 최강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윤타용/기자



2023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실시

박재식 교육장, "장차 미래 인재들이 새로운 환경 경험·전문적인 시설 체험은 학생들 미래 설계에 큰 도움 될 것, 이런 경험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토),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에서 2023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영재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초5~6학년 31명과 강사 및 담당자 37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캠프는 선진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날이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통한 영재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박재식 교육장은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곳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또한 전문적인 시설을 체험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킬러문항 제거 대비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개발·보급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1일 공정한 수능 평가와 킬러문항 핀셋 제거 대비를 위한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개발해 일선 고교에 보급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 개발·보급은 지난 6월26일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발표 이후 시교육청에서 수험생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능

(모의평가) 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 경험이 있는 교사 중심으로 43명으로 구성된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생활과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과학탐구(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담당 교사들이 최근 3년간 기출문제와 EBS 수능연계교재를 분석해 올해 출제 경향에 맞춰 개발했다. 실제 수능 시험지와 동일한 형태이며 정답 해설지도

잘 구성돼 고3 수험생들의 수능 대비 연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부 발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수험생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진행 중이다. 광주 모의평가는 우리 지역 전문가 선생님들이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개발했다. 수험생들이 부담을 덜고 연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며 "모의고사 등으로 연습을 촘촘하

게 잘하면 좋은 결과도 따라온다. 부디 우리 광주 수험생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방연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송파구 민간공익단체들, '태극기 달기' 릴레이 홍보

4개 단체 참여 석촌호수, 잠실역 등에서 9일부터 릴레이 홍보캠페인

송파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많은 주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내 민간공익단체 주관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평소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가 참여한다. 릴레이 방식으로 9일과 15일에 단체별 홍보를 진행한다.

첫 시작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가 9일 오전 8시 잠실역에서 진행했다. 회원 100여 명이 함께 하여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태극기를 배부하며 나라사랑에 동참해 달라는 인사를 건넸다.

이어 같은 날 바르게살기운동송파구협의회와 송파구재향군인회가 캠페인을 이어받아 석촌호수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흥수/기자

방문객들에게 태극기 문양이 그려진 스텐드와 가정용 태극기를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며 "오는 15일,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신중년의 새로운 도약앞장선다

4060 신중년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주는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운영

영등포구가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 새로운 삶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신중년(4060 세대) 인구는 2천만 명, 전체 인구의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과 노후 설계,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자기 삶을 함께 나누며 감성을 치유하는 '쌈쌈쌈 인생공방' ▲미술, 동화구연, 풍선아트 등 재능을 기부하는 '우리동네 영쌔' ▲취미와 여가를 공유하는 '통(通)하리 동아리' 등 다양한 신중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위해 2011년 문을 연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해마다 삶의 전환기를 맞은 신중년의 자기계발과 평생 교육, 지역사회 공헌 등 노후 준비의 구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도 응원한다. 8월 21일에 개강하는 '글쓰기 교실'은 '도전'과 '열정'으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신중년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과 재취업을 위한 과정도 운영한다.

아울러 신중년들은 10월 중에 개최될 '신중년의 재능 나눔 축제-배워서 남주자 페스티벌'에서 동아리에서 만든 손글씨(캘리그래피), 식물 세밀화(Botanical Art, 보테니컬 아트), 펜 드로잉 등 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시니어행복발전센터를 통해 구의 기동인 40~60

대 신중년들이 활기찬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중년들의 자기 계발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광진구, 나는 여름방학! 잊지 못할 추억 남겨요

우리 동네 이웃들이 오랜 시간 여름방학을 기다렸을 학생들을 위해 여행 같은 시간을 선물했다.

중곡2동은 8일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정근자) 주관으로 '1070 행복 통통, 서울스카이 나들이'를 떠났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독거 어르신, 자원봉사자 21명이 세대를 아우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20대와 60대의 많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깊은 공감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는 순간이었다.

자양1동은 여름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들의 행복한 아동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사전 신청을 받아 회차별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 이달 9일부터 3일간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

를 제공했다. 첫날에는 로봇을 직접 만들어보고, 둘째 날은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해 나만의 비밀 서랍장을 꾸몄다. 마지막 날엔 드론을 제작해보며 작동 원리와 조종법을 배우기도 했다.

아이들은 "제가 직접 로봇도 만들고 신기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서 좋았어요"라며 한껏 신난 모습을 보였다.

강성원/기자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야외에서 즐기는 '한여름 밤의 돛자리극장' 개최

18일 오후 5시, 양재근린공원 농구장에서 '한여름 밤의 돛자리극장' 행사 열어

서울 서초구 양재2동은 18일 오후 5시부터 양재근린공원 농구장에서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양재2동 한여름 밤의 돛자리극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재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올해 첫 번째 행사로 가족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부대행사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행사장 주변으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플리마켓 ▲먹거리부스를 오후 5시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오후 6시 30분부터 락스틱 밴드 '햇바라기'가 디즈니 메들리 등 가족 애니메이션과 어울리는 친숙한 곡으로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저녁 7시부터 300인치 대형 LED 스크린과 야외 영화 상영용 스피커를 통해 2022년 개봉한 가족 애니메이션 '쌍2게더' 영화를 상영,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보민 양재2동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un #육지안익성 #봉뽕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문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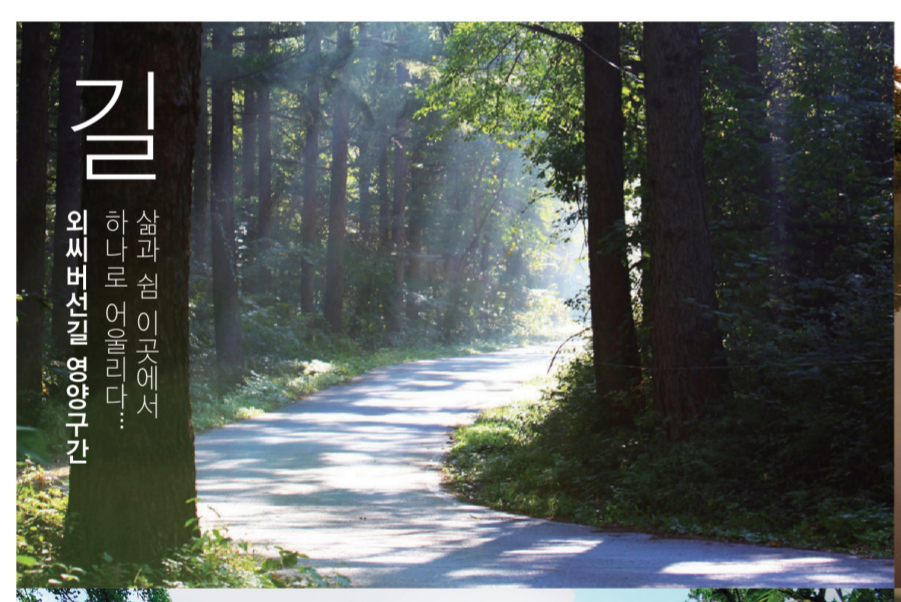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머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살과 산 이곳에서
하루도 오예고...
이제 포진해 영양가진



물
영양이 대자연
스물과 아홉에 건다...
영양이 제맛이네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을 밝히면...
영양이 제맛이네



얼
시골의 대가
시골이 영양이네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항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 사대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